제 285 회 제 4 차

서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0 년 10 월 19 일 (월)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4차 회의)

1. 군정질문(보충질문 및 답변)

부 의 안 건

1. 군정질문(보충질문 및 답변) ····· 2

○의장 나학균

성원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군정질문(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0분)

○의장 나학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군수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한덕수입니다.

○의장 나학균

그러면 서천군 공모사업의 전략적 체계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먼저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길어져서 그런지 너무 함축적으로 답변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답변 중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하셨어요. 공모사업 중에 문제점이 어떤 것을 발견을 했고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대체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부서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다소 부서간에 연계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과정에 있어서 기능이 좀 중복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관리상 미흡한 면 이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숙의시스템이라고 해서 1·2차에 걸쳐서 먼저 사전에 정보파악을 한 다음에 1차로 팀장들이 주축이 돼서 공유도 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숙의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사실 실과별로 간부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 주간업무보고 등등을 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협력이 잘 안 됐던 것을 인정을 하시고 또 그런 점들을 개선을 해야 중복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너지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태 있었던 그런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보교환이라든지 소통이 좀 미흡했다라고 보셨고 앞으로는 숙의시스템을 거쳐서 실과장님들이 판단을 하고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미리 실장님도 파악하셨다시피 선제적 대응계획이라는 것을 마련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 마련을 하신걸 보면 자세히 문제점도 파악됐고 개선방안도 마련이 됐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다 들어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 대응전략수립에 관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이 굳이 용역까지 줘서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자체로는 지침이

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전략계획은 공모사업신청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과 관련된……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이 해마다 있는 것들도 있고 갑자기 있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것을 용역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용역인 것 같은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현안사업 분석대응 용역도 같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우리 공모사업을 뭘 할지 또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과에서 역량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계획은 또 갖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전략계획수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를 않고요 다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지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과 그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수립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정부가 연초든 또 정부 초창기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비전이 또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있다시피 정책적으로 그런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 우리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시기라든지 다음번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선정이 돼서 재정적으로 좀 많이 지원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관리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물론 그런 효과도 있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열악하니까 기왕에 할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그동안 분기별로 보고회 같은 거 하는 것도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아진 의원

공모사업 자체가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많은 경쟁들 속에서 애써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올해까지 완료된 사업들을 또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공모사업 이후에 관리가 또 우리군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생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고려해서 공모사업이 우리한테는 재정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업 이후에도 어떻게 할지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용역 과업지침 하실 때도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우리군

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으로만 느끼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정부나 도에서도 공모사업이 좀 줄어들 것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대응해서 우리군에서도 계획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서천군 인구 및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이후에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2018년도에 하고 다시 한 이유는 2018년도 이후에 보면 인구정책변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5만이 2~3년 안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 추세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군이 5만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정책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인구정책이라는 게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그래서 인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찌보면 인구라는 게 전반적으로 정주환경이 중요한 것들이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전환돼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 지역인 군산이나 익산, 전주 가까이 근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문화·주거 물론 인프라가 서천보다 확실하게 높은 건 사실이고 또 군민들은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해 영유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천군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실례로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나오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2~3일, 3~4일 기다려야 그 자료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서천군에 대한 인구변화에 대한 것을 동향을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을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하긴 합니다. 분석을 해서 제가 보기도 하고 궁금할 때 제가 한번 파악도 해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만 이게 정기적으로 매달이 됐든 격월제가 됐든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군수께서 TF팀을 직접 관장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출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전입자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전

입자가 왜 줄고 있는지 전출자가 왜 진정추세인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없고, 혼인신고도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몇 분만 이렇게 혼인신고 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했으면 초혼이 몇 분이고 재혼이 몇 분이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출산문제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이게 엇나가려나 모르겠는데—출산신고를 받을 때 '둘째아를 낳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면접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둘째에서 셋째 마찬가지고요. 우리군에는 그러한 시스템조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월말 되면 인구동향이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고 결혼한 분이 몇 분이고 전출자가 몇 분이고 전입자가 몇 분이다. 그래서 몇 명이 줄었다' 이 통계 외에는 서천군이 가지고 있지를 않고 그 이상 나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다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는 분석은 해요.

○김경제 의원

죄송합니다. 나름이라는 판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기업유치가 중요합니까, 인구변화에 대한 동향이 더 중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근본적인 건 인구변화겠죠.

○김경제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 못지않게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섭섭하시겠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더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7급 한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그것도 전체적인 인구만 통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침 먹고 배가 아파요. 막연하게 '아, 내가 아침을 잘못 먹어서 배 아픈가보다'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나오겠어요? 그거 공감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전입신고, 전출신고, 출생 이런 담당자들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인구변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계는 최소한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단위로는 우리가 왜 줄었는지, 이 주간에는 몇 분이 빠져나갔는데 왜 인구가 줄게 됐는지, 이런 원인분석이 나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보고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원하는 거예요. 군수께서 직접 해서 TF팀을 운영해서 큰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셔서 인사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사도 분명히 나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그 인원이.

저는 1개 팀이 있어도 우리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맞는 말씀이시고요.

○김경제 의원

그러면 그렇게 보충하도록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 군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담당 부서장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로만 부르짖고 우리가 '5만이 부서지게 생겼다, 지금 인구유출이 많다' 이것만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진단 이후에 치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것은 저는 주거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천군의 최소한 공직자들이 '서천군의 근간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지역을 우리가 보호하려는 인식, 우리 지역을 서천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서천군에서 공직생활을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건 나중에 사회복지실과도 관계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전출자가 많이 있어서 인구가 줄고 있지만 특히 청년정책이 부실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20대 이후에 빠져 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거기에다가 결혼기피, 출산기피 이게 굉장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 출산·육아 정책변화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정책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왜 감소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국가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출산계층인 청년층의 유출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가임여성을 포함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가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0.11%, 0.42% 이 정도 청년정책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올해 사실은 1%가 조금 넘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기금을 10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물론 서천군 같은데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 예산에 10% 이상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편적 복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진짜 우리 서천군만의 특이한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과감하게 청년예산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은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을 배려하고 또 청년들이 머물러야 우리가 출산을 장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인구동향을 정확하게 면접해서 우리가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사망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신 분이 투병생활을 1년, 2년 외지에서 하신 것인지 갑자기 사망하신 건지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건지 이런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도 줄여가는 문제도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소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저는 기업유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보다 우리 서천군 인구가 반토막 나면 기업유치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군수님께서도 TF팀을 운영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획실의 역할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팀의 인구정책 담당하시는 것도 팀으로 한번 격상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올 9월말 통계가 52,026명이에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우리가 불과 2년 후에는 5만이 잘못하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5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추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서 전입장려 지원시책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전입장려 시책이요?

○김아진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입자에 대한 지원이 전입축하금 만 원 서천사랑상품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민원인이 외부에서 올 때 '지원이 있느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가 알려주고 싶다 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정책을 몇 가지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우리군이 가족행복도시서천 실행을 하면서 실행계획을 세대별로 세웠어요.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이렇게 4분류로 해서 2018년에 청년에 관한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신혼·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사업은 세워놓고 여태까지 지금 3년이 되어 가는 동안 실행이 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

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청년할당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제가 알기로 청년위원회 10% 할당하기로 했는데 10%도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혼자 들어가서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30%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도 인력풀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40% 맞추기가 어려운 것처럼 청년들도 위원회 참석할 수 있는 인력풀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런 역량강화사업들을 해서 청년들도 이런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출산장려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앞서서 김경제 의원님이 전반적인 인구정책을 말씀하셔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수님 답변하신 것처럼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과는 있었나요? 작은 성과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출산장려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떤 출산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안 했다치더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은 많이 됐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를 들면 인구감소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현재 인구보다 늘린다거나 이런 정책목표가 있을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실장님이 생각하신 인구정책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억제입니까? 유지하는 정도?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그 성과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궁극적인 목표에 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목표에 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저는 이게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거비 지원이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잘하셨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보완했습니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장

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다수 소규모 지방 중소도시, 우리 군 단위 말고 시에서도 굉장히 인구감소들이 많이 있고 각자들 다 인구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인구정책팀 김경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획실에 정책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구정책팀을 몇 년 운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인구정책팀으로 운영은 한 3년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팀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동준 의원

정책개발팀으로 바뀌고 그 정책개발팀에서는 다른 기획실의 주된 정책들을 또 발굴하고 하는 업무를 하면서 우리 김경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원 한 분이 인구정책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담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전담입니다. 가족행복도시 문제하고 인구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동준 의원

왜 인구정책팀이 없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아마 그 당시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를 한때 인구정책팀이 막 생겼었어요. 인구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인구정책팀이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또 각 시군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전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동준 의원

뭐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주된 업무를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인구정책팀을 없앴다, 이건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포기내지 줄였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준 의원

혹시 그러면 예를 들면 충남 시군에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인구정책팀을 둘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없애는 추세인가요? 확인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지금 현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다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팀이 아니고 어떤 과 격의 조직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순히 인구정책팀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부서의 일들이 사업들이 다 맞물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얼마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총괄하고 각각의 사업들이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에 어떤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우리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아무튼 저는 군수님이 우리 김경제 의원님 답변에서 TF팀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인구정책팀을 없앴던 이유와 관련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전담조직을. 그리고 부서의 편제들도 그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저는 사실 출산장려정책 중에 출산장려금을

주되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사회복지실에 내용이 잡혀서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문제, 신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아까 김경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저희들이 한번 봤더니 70년대만 해도 4.7명인 것 같더라고요. 4.7명인데 현재 전국 평균이 0.9이기 때문에 5명 낳았던 것이 50년 사이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가임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가임여성을 포함한 청년층이 유출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환경이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인구감소에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된 쟁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아까 말씀하신 젊은 가임기 여성의 유출을 가장 크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저희가 일자리나 이런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고 기업유치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 내용으로 결국에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항산단에 기업이 유치가 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일자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제 가임기 젊은 여성들에게 선호할 수 있는 그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충분하진 않겠죠.

○조동준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물론 가임여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겠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 남성 청년이나 누가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인이나 가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저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장항산단에 유치되면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거와 같은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일자리들은 사실은 뭐 수도권에도 널려있고 거기서도 못 구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가임기 젊은 여성들이 정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주여건들과 함께 사실은 젊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를 전공한 젊은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예를 들면 같은 직종에 그런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서천에 장애인시설과 다른 지역 도시권에 있는 시설과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들이 이런 기업들에 사실 취직할리 만무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들을 더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들에 대한 것들도 처우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여주는 방안들이 사실 강구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젊은 가임기 여성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을 더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조동준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1명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용으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실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일부 얘기되는 게 뭐 대학까지 다 가르쳤을 때 1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우리말로 가구도 없는 얘기고요.

(웃으며)

아무튼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대학에 진학하기, 20세까지 생각했을 때 사교육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양육비용—사교육비는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1명당 월 한 73만 원 정도. 2명이면 13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나머지 정책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20억 규모의 저출산 극복 지원책을 실시하신다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게 뜬금없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후에 사회복지실에서 다시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비단 예를 들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지금 저희가 펴는 정책들과 관련해서 지난번 기획실에서 변경했던 것처럼 그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고 말이 아닌 실제 실행과 적극성으로 담보해내지 않으면 저는 그냥 구호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여기 계신 대부분 실과장님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이 여기에 다 계신데 10년 뒤, 20년 뒤에 살아갈 그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80년대 인구정책은 '인구를 낳지말자, 줄이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정책의 어떤 선제적인 면에서 보면 참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차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만은 정말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라든지 특정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도 줄어드는 추세라 어려운 면이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임기 여성이 자꾸 유출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아동돌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돌봄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좋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답변에서 보면 여성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업훈련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로일하기 센터라든지 여성일자리창업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사도우미, 정리전문가 이런 것들을 직업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이나 가임기 여성들이 이 직업훈련에 참가를 하겠

습니까?

여성 직업훈련에 관련해서 이런 가사도우미라든지 돌봄에 관한 그런 훈련들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그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고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돌봄센터가 생겨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일자리 찾고는 있는데 하루종일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 여유시간에 일을 다니고 싶은데 시간제로 되어 있는 일자리 자체도 없고 이렇다보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면도 있고 하니까 자꾸 외부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그것과 연계한 직업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파티플래너라든지 이런 문화예술기획에 관련된 그런 직업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무작정 양성할 수는 없지만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전문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지금 자치과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성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취미활동 위주로 하는 훈련이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쪽에서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거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취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 있으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직접 훈련도 하고 취업도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도 구성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보면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이분들 외에는 참여를 안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된 부서장.

○김아진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협의회에 있는 팀장님들도 그 담당 팀에서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5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이 2018년에 138

건, 2019년에 213건, 2020년은 5월까지만 7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일어난다고 보여지고요.

변경사유는 답변에서 하신 것처럼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또 '주민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할 당시에 누락이 되었던 부분을 반영했다' 이런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한 가지, 최초 설계 시에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설계를 한 건지 어떻게 누락된 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사업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현장을 가보고 전문가가 가보면 무엇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리고 질문을 했던 의미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건설에 관한 기술적인 면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이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러니까 설계변경인데요, 설계변경을 당초에 처음에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라는 게 저희들이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이상이면 당초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공사의 경우에 도급액이 10% 이상을 초과할 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서 실무심의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심의 때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설계변경이 대부분이 사업비가 증액되지는 않고 원래 사업비보다 적거나 원래 사업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업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변경된 사업들을 건건이 다 의회에 보고할 수는 없다고 저희도 봅니다. 간단한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그에 맞게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큰 공모사업을 하고 그 공모사업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변경되는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아진 의원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을 하다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변경된 이후에 의회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몇 군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과에서 난처하실 수도 있어서, 실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액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크게 변경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경미한 사항까지 다 보고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증액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크게 변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건건이 저희가 간섭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규모로 진행이 된 사업들은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방문 시에 꼭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셔서 계획이 변경되면 의원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장항 각종시설물 운영관리 및 유부도 관리체계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이게 장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10여 개 이상 비슷한 사업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각종 시설을 통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 목적이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김경제 의원

우리가 지역주민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가 문제겠죠. 물론 지역민들에 대한 시설운영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을 우리지역에 머물게 해서 우리지역이 뭔가 시너지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들을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거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시설이 없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이 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어제 오늘 아시는 게 아니고 운영 이후에 몇 개월에 이후에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지금 그래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제대로 운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방향 설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과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는 왜 잘못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답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직영이냐 위탁이냐' 해놓고 위탁이 좀 유리한 것처럼 판단하고 위탁주면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그냥 끝입니다. 위탁 준 범위 내에서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최소한 그걸 운영하는 실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겠지만 지역민들이 판단하고 바라보는 눈길은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고 나면 시설 앞에 들어가는 풀 한포기 조차 뽑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위탁이 유리합니까?

나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안 돼서 저렇게 막대하게 우리 예산만 들어간다면 죄송하지만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위탁받는 운영사 분들에게는 죄송스런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확장성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김경제 의원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경제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위원

관리에서부터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모 행사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몇 번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수혜자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전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앉는 자리까지 변동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그 참여자 그들만의,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 과한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의 영유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거예요. 확장성도 없고. 본래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효과를 누리고 지역상권을 살리고 또 그래도 당장 상권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지역이 외지인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이런 효과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특정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진 않겠지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시설들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내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연간 운영을 해보니까 몇천 명이 참석하고 몇백 명이 참석하고 결과를 다 내놔요.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죠?

심지어 열 분이 아침에 왔다 가고 점심에 왔다가고 저녁에 왔다가면 그게 30명이 되는 숫자도 돼요. 진짜 이번 기회에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역시도, 제가 우리 가정사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집 손자애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에요.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가봐라" 하면 어린 아이들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볼 거 없어요"

우리 서천군에서 지금 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타지에 비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단 저는 우리 집의 얘기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진짜 시설이 문을 닫는다는 마음으로 개선할 의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서로 부서 간에 모임도 갖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은 운영에 대해서 특히 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에 좀 미흡하지 않아나 싶고,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관리에 대한 문제도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온다고 하면 벌써 주변이 틀려집니다" 이래요.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정확히 우리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서?

어떤 특정 팀에서.

죄송하지만 각 시설 간에 협력은 고사하고 각 시설을 담당하는 같은 과에서 같은 팀까지도 안 됩니다, 팀 자체가 틀리면. 그건 인정하시죠?

그럼 이건 누군가는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놔둘거냐……

팀 구성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천군 전체의 이런 시설들을 아우르는 재단설립을 꼭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전체를 운영하는 재단설립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운영을 막대한 우리 군비 들여서 운영하는 이 시설들이 진짜 서천군에 보탬이 되는 시설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저 좀 방관했다가 그냥 저냥 운영하다가 1년에 주변 한두 번 풀메는 형식.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좀 개선하도록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은 일개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서천군이 지금 절실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우리가 위탁계약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장소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침 새벽에 도시탐험역 주변에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씁시다' 해서 협력이 안 돼요.

왜? 위탁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시설 이용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지 장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설들이 많이 추가가 될 텐데 걱정이 돼요.

그래도 지금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해와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앞으로 3년~4년 지나면 이 관리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클 거예요. 이 막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운영을 하면서 진짜 군에 유익하지 않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과감한 결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항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시설이나 특히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기존의 시설들을 통합운영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이런 시설들이 당장 효과는 못 내겠지만 우리지역의 유익한 시설들, 우리 군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시설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면 지금 우리가 돌봄시설들을 여기저기에 하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돌봄시설 못지

않은 시설들을 놔두고도 또 다른 시설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돌봄시설을 하고 이제 돌봄시설도 관 주도형에서 학부모 주도형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를 판단해 보면 이제 남한테 맡기기보다는 학부모들까지 삼삼오오 맡기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또 한 가지 유부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도 실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재임 중에?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5~6번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김경제 의원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삼십몇 년 한 것 같습니다.

○김경제 의원

자, 이게 우리지역의 현실입니다. 몇 번 가고 안 가고의 중요성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서천군은 유일하게 유인도 섬이 유부도 하나뿐이 없어요. 물론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서천군민입니다. 우리 13개 읍·면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군에서 안 가도 읍·면에서 갈 수 있고 그런 체계들이 그나마 읍·면에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유부도는 실질적으로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축제를 할 때 유부도에 이런저런 시설해 놓고 배 한번 띄워보지 못하고 사람 한번 들어가지 않고 군비만 낭비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유부도에 어떻게 가고 어떤 날씨가 되면 못가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12월 초순부터 2월말까지는 방문조차 어렵습니다, 물때 맞춰서, 오후에는 일교관계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미흡해요. 각종 해안가 시설들.

또 우리가 음용수 문제 또 지역 전반에 대한 민원, 예를 들어서 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곳만 갔다 와요. 그것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옵니다. 이게 정책이 바로 되겠어요?

해양수산과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해일방지시설이 옛날 송림분교 주변에 가보면 겁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방치해요.

왜 그러냐? 우선 방문을 자주 못하다보니까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개 실과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쓰레기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금 쓰레기 수거함을 갖다 놨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죄송하지만 그걸 왜 하자고 했나 싶어요. 그 주민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걸 왜 하자고 했나 그냥 놔둘 걸.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유부도 방문을 할 때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내가 오늘 못가지만 가는 부서에서 확인하고 오고 또 갔다 와서는 유부도 방문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책임성 있게.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어떻게 보고 왔고 무슨 실과에다 이렇게 이렇게 건의도 했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거기다 실질적으로 서천군민이 몇 분이나 되고, 전북 분들이 많다" 죄송하지만 한두 분밖에 없어요. 다 우리 서천읍, 장항읍, 마서면 일대에서 사시던 분들이고 지금도 오고 가면서 가정 살림하고 있고 부모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체계 만드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지만 그때마다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아니,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유부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유부도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가는데 그게 어떤 게 중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현재 세계갯벌 자연유산등재가 되는데 그게 등재가 되면 등재됨에 따라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는 없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천군의 관광명소로 사실은 전부 다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단계 이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소한 것조차도 해결 못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리고 우리가 유부도와의 연락체계도 우리가 상시 군과 직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래서 긴급할 때 주민들이 대처하고 이런 부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돌제 앞에 선착장을 확장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 앞에 임야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사실은 이게 주민들은 사유지다 보니까 거래가 돼서 이런 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도 중요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 되었을 때 정책도 펼 수 있고 그 정책에 의해서 주민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여기에 관련된 실과장님들 뒤에 다 계신데 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다만 다 미루는 거 보다는 그래도 타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유부도 방문할 때 좀 연계를 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발언대로 나옴)

그러면 마을회관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노성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노성철 의원입니다. 군정질의에서 했듯이 제 생각은 마을회관은 마을의 얼굴이고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떠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의원

방문객들이 오셔서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찾을 수 있는 게 마을회관인 건 맞죠?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노성철 의원

아침에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정도 훼손되면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상당기간이 됐을 거라고……

○노성철 의원

제가 볼 때는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그렇게 국기가 계양되고 있는 게.

이거는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저도 가끔 마을 출장을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읍·면에 교체 얘기도 하고 했는데 미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살피지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읍·면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장하고 해서 정부책임제라든지 그런 관리체계를 확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현재 읍·면사무소에서는 마을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마을별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분담마을 있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거를 활용하셔서…… 낯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마을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게 한두 마을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면 군 전체가 욕을 먹는 게 아닐까요, 외지인들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성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평등 극복방안 및 정책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대응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뉴얼로 다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오히려 더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직접적으로 월 1회씩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2개 기관의 센터에서 안부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휴관 장기화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오고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독 그리고 방역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을 장기간 사용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도 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점이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10월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아동학대에 관해서 전문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군은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2명 지금 배치를 발빠르게 했다고 해서 저도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요원을 전환배치를 했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던 그 담당자의 역할은 그 업무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업무 내에서, 거기에 그분 말고 다른 세 분이 있는데 그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고 이 한 분은 전문적으로 아동보호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정규직 직원 한 사람을 더 보강을 해서 두 사람이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전담 전문직을 1명 더 보강을 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아진 의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도 사실은 인원이 충분한지…… 한 사람당 50명~70명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례관리요원 1명이 빠지다 보면 나머지 인원을 나머지 그 세 분이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김아진 의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다른 세분이 하기 때문에 조금 업무적으로는 과중한 부분이 있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팀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전담 드림스타트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팀까지는 못하고 저희 아동복지팀에 소속으로 해서 직원들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저도 그 조직도를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업무까지 맡겨지다 보니까 세심한 관리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학대의 우려가 더 많아진다고 보여지고 또 아이들은 그것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담직원이 배치돼서 전수조사를 하실 거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기는 없었는데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호 전담기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전에는 전담기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 그 전담기관에서도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하고 관여를 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금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위기아동을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자주 찾아보고 아이랑 친밀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들을 발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2명의 인력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위기아동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동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아동이 없도록.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육청, 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 그리고 또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또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집에 있으시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있는지.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까지…… 전에 2단계 그때까지도 장애인 예방이라든지 치료 그 부분은 10명 이내로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번에 1단계로 하향이 되면서부터 조금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에.

○김아진 의원

지금은 다 개방이 되고 경로당도 개방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완전개방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거기서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고 방역이라든지 열 체크 그런 부분들은 아침저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가 돼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심하기는 이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받고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난주부터는 온라인으로 받았고 이번 주부터는 읍·면에서 서류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그 대상자 파악은 됐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대상자 파악은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신청주의로 하고 있고 대상이 소득이 25% 이상 감소되고 또 일정기준의 소득기준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 실에서 딱 어떤 사람이 대상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청주의로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가 신청기한이거든요. 더 지켜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아진 의원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별로 없어요.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대부분 다 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생계형자금 그런 부분들을 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중복지원 안 되던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아진 의원

신청자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간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 그리고 플래카드 게첨하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또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고 가시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각 읍·면에서 지금 받을 거라고 하시니까 읍·면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면들이 안 보이고 숨어있던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우리군에서 어려움 겪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금년에 목표가 300개였어요, 에너지공단효율사업이.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300명 정도.

○강신두 의원

작년 19년도에 420가구를 해서 8억 3천만 원어치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20년도에 와서 300가구를 목표인구를 삼는대요?

우리 서천군에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지금 저소득가구가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하고 합쳐서 한 3,000가구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1년에 1%씩만 하면 300명 돼요. 읍·면사무소 내역을 보면 1개 면단위에서 그래도 100명씩만 해도 1,300명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지금 답변서를 보면 '거두었습니다만',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왜 이런 답변이 오겠어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때문에 이런 답변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아마 300가구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읍·면에 독려를 해서 금년에는 669가구 정도를 추천을 해서 거의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꼭 당부 좀 다시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 적극행정 공무원과 경진대회 수상자를 추천하는데에 포함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적극행정 공무원 호봉 특별승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신두 의원

예,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대상자를 우리 일반 공무원과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

로 적극행정을 했던 직원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했느냐에 따라서 우선 주자는 거예요, 우선. 그런 용의 있으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우리군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이라든가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 호봉승급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극행정 했던 직원하고 우수공무원, 뭘 해서 우수공무원 했는지 그게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또 효율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우리 실제 독거노인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 해서 10%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10% 더 추가로요?

○강신두 의원

예, 우리 인구수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전체 포함을 해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데 의원님 이게 한번 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신두 의원

3년이 안 되니까 지금 내년에 하면 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강신두 의원

그러면 내후년 가면 그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강신두 의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지금 신청한 거에 10% 이상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하여간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해당 읍·면하고 관련팀하고 부서하고 해서 한가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군정질문 했을 때도 420가구에서 8억 3천만원 순수국비를 했으니까 2021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본 의원이 볼 경우에 작년 올해 우리 강신두 부의장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사회복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10억 확보하려면 편성해서 의회 승인 얻으려면 어때요? 편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승인 안 해줄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참 올리면서도 고민 많으시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자, 이 사업은 신청만 하면 되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대상이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경제 의원

아니, 명단만 주면 되죠, 서천군은?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거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거의가 아니고 명단만 주면 되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명단만 주면 되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사업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업 적정성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저는 대답을 들으면서 참 답답해요. 아니 국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을 명단만 주면 되는데 담당 실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못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5천여 명 되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우리 군민 10% 가량 되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명수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1,000명씩 돌아가면서 받아도 3년이 지나요.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올해 어디 어디 읍·면에서 어떻게 신청을 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읍·면별로 파악한 숫자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2개 읍·면 외에는 저조하죠?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대체적으로 장항이 한 339개소고요. 서천이 67개소고 그 나머지는 적게는 9개소에서 한 30개소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각 읍·면에서, 지금 우리 서천군 자체도 그렇지만 복지를 외치고 있어요. 명단만 주면 돼요.

"우리 업무가 과중한테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시켜야 되느냐?" 에너지공단에서 그걸 홍보한 의원님한테 항의를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죄송하지만 사회복지실 자체가 존립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예요.

목표 300명 했으니까, 사백몇십 명 했으니까, 150% 달성 했으니까 충족하시겠네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에다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공단에 올리고……

○김경제 의원

죄송하지만 진짜 국비가 명단만 줘도 확보되는데 어떻게 올 연말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복지예산 세워달라고 뭘로 주장하실 겁니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속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한 읍·면에서는 여기저기 다 집들 창문 수리 해주고 하니까 다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진짜 죄송합니다, 도시락 몇 개 배달하는 게 복지의 전체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최소한 이 부분만은 우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이런 말씀 안 듣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저도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다가 의문이 나서 답변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 669가구를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358명만 확정이 됐다고 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당초 목표가 300명이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120% 달성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김경제 의원님이나 강신두 부의장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대부분 추천을 하면 대부분 선정이 될 텐데 왜 669가구를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밖에 확정이 안 됐어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기준이 지원가능 대상자가 있을 텐데 지원가능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을 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신청을 하셨으니 추천을 했으니까 거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자가 아니다라고 반려가 된 것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신청을 할 때 파악을 하고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국비 100%라는데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몇 년이 되든지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실장님도 들으셨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고 국가적으로 또 우리 자체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고 그건 아시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그것은 단지 효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제도를 포기할 거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조동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 질문 있으시려나 모르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앙정치권에서 신생아들을 위해서 기본자산제가 논의되고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

○김경제 의원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 논의가 돼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서천군이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타 지자체에서 좀 올려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조금 올리는 정도.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또 지금 첫째·둘째아 낳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넷째·다섯째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단 1명뿐이라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신생아 기본자산제 도입 같은 이런 파격적인 우리 서천군만의 정책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예산의 문제하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기대를 떠나서 우리가 이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은 없고요. 인구정책분야는 기획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보니까……

○김경제 의원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핸들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 같은 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사회복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부서에서는 장려금 지급만 하다보니까.

○김경제 의원

그러니까 그 장려금 지급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장려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 지급하면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물론 기획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복지실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사회복지실이 정책기획실에다가 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으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이 지금 연간 200명 미만 정도로 올해 예측이 되는데 400명, 500명 올라가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한 정책, 최소한 우리가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소추세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출산과 육아정책을 피면서 지금 돌봄 시스템을 자꾸 보충하고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효과는 어때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효과는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러나 거기에 우리 서천군의 최소한 유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보편적으로 다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죠?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김경제 의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게 뭐냐면 학년층 학부모들까지 전부 소통을 해서 한 집에서 하루, 그러니까 1박 2일을 하고 보내는 시스템들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학년이라면 3학년 학생, 자기반 친구들을 데려가다 대여섯 명씩 그 부모가 하루저녁을 재워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학생 생활들을 독려하고 그 밑에 또 1학년 학생이 있으면 1학년 학생들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런 걸 지금 하고 계세요.

또 지금 학교 등하교를 못하고 대부분 학원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심지어 학원까지도 서로 한 부모가 1일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렇게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대표적인 예가 한산 돌봄센터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제 의원

돌봄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검토는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실에서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정체되어 있고 올스톱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뭔가 하려고 움직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군이 지금처럼 방치하고 말거냐, 아니면 우리가 출산에 대한 부담, 유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짜 우리가 100은 아니라도 하나부터라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조금 다른 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돌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면 보육이나 돌봄이 빠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산초에 학부모 주도로 해서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취득하는 그런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사례가 교육감도 방문을 하시고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례를 가

지고 서면에서도 사실은 추진을 했다가 조금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진행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마산 쪽에도 지금 돌봄센터를 만들 계획이시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럴 때 계획이 있으시면 마산 쪽도 학부모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산초의 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미리부터 시켜주시고 또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그런 준비들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마산은 작년에 제가 출장을 갔더니 젊은 분들이 거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서면이 좀 일찍 저기하는 바람에 여건이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부분 저기해서 한산하고 그런 유형을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한산은 초등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무적인 면은 학교에서 대부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데 서면은 정보가 조금 늦어서 진행을 못했고 마산 쪽은 학부모들이 서류적인 것들도 다 해야 되는 환경인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좀 교육도 시키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한산의 사례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그쪽으로 같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김경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모둠 활동처럼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들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파악을 해 주시고 지원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타 지역에서, 천안지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경로당을 활용해서 아동돌봄을 하는 그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돌봄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어르신들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면들도 좀 타 지역 사례를 정보를 얻으셔서 우리도 가능한지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이 부분은 우선 학부모들이 노인분들한테 맡길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는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마을별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의견을 접수해 보는 방안도 시작단계에서 그런 것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해야 돼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출산장려금 현재와 같이 조정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이게 한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현재.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현재 지원금이.

○조동준 의원

17년도에 제정이……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2019년도 1월 1일날 개정이……

○조동준 의원

19년도에는 둘째아만 150에서 200으로 50만원 상향됐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폭 상향된 건 2017년도에 조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이때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 복지실에서 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출산장려금의 설계는 사회복지실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인구정책 전체가 기획실 쪽으로 옮겨가서 우리 사회복지실에서는 지급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경제 의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현재 운영되는 출산장려금의 설계는 사회복지실에서 했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작년에 출산장려금으로 얼마나 지급됐는지 혹시 파악 해보셨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저희가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서 출산지원금만 3,200정도, 1년에 총 3,200정도 지급하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 2017년도에 이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 하겠다고 하는 현재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도 저는 이번과 똑같은 질문을 사회복지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이 출산장려금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에서 어쨌거나 '둘째·셋째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군수께서 답변 하셨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높여야 되는 이유,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데 그때도 공감을 했어요, 2017년에도.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냐?'라고 했더니 그때 담당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첫째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낳고 둘째는 그다음에도 많이 낳고 하니까 셋째·넷째·다섯째에다 비중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소요가 많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결국에 이 정책으로 출산장려를 해서 실제 출생률을 높이겠다라는 정책의지가 전혀 없구나라고 사실 판단을 했어요. 그 반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런 기여 하지 못했죠. 2005년도부터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일부에서 이게 출산장려금 뭔 필요있냐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아주 아니라고는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출생률하고 실제 인구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군이 2002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296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1.112명까지 떨어진 거죠. 실제 출생률에서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변동된 폭을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조동준 의원

0.1몇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출생아로 보면 2002년도에 504명이었는데 작년에 174명이죠.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출

산율은 그냥 대충해서 높일 수도 있는데 실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줄어드는 거고 실제 각자 적게 낳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 출산장려금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남이나 영광 같은 경우 실제 출산장려제도를 바꾸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보셨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거나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총 집행한 건 3,200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출산율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출산지원금이 결국에 1년에 3,200만 원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출산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 출산지원금도 물론 인상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돌봄시설 확충, 양육비 지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출산을 더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당연히 그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복지실 뿐만 아니고 인구정책 전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일단 아무튼 출산장려금은 군수님 답변에서 둘째·셋째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검토는 안 하셨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그 뒤로 검토는 안 했고요.

○조동준 의원

뒤에 하실 건데, 지금 만약에 실장님 생각에 현재 둘째 200을 주고 있고 셋째 300을 주고 있는데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글쎄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제가 일괄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500주지, 한 1,000만 원 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한 아이를 낳아서 우리지역에서 양육하는데 어느 정도 실제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이 기준을 산출할 때도 그냥 그런 기준 없이 뽑아낸 금액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불식되기 위해서라도 실제 이런저런 연구들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출산장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지역에 적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보육환경 여건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셋째 낳는 게 목표라고 봐야 돼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셋째 정도까지 감안을 해서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감안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는데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제가 항상 느끼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지지부진해서 확인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실에서 지급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업무의 중추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시급하게 이걸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적합하게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오늘 기획실부터해서 계속 인구문제며 출산문제며 이어졌는데요. 보육환경 관련된 문제도 그런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황이야 대충 일괄 답변에서 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아이들이 급감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산율의 문제나 신생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예산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신경써야 될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은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현원으로 봤을 때는 5만 명을 상회하고 있긴 한데 그 인구는 사실 전체 군단위 중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 신생아수와 출산율의 문제거든요. 고령화율이 이제 37, 38% 육박하고 있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한 36% 정도 되는 것으로.

○조동준 의원

곧 37%, 40%에 가까워질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인구는 5만을 유지하더라도 그 실상을 뜯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지방소멸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왜? 신생아나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만큼 더 절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군수님 일괄답변에서 쭉 이런저런 시책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시책들은 다른 시군도 다 하는 거죠?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 같은 경우.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니, 자체사업 말고 우리 자체사업 말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국도비 지원사업……

○조동준 의원

예, 국도비 지원사업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박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동소이하게 해서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렇죠?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들이야 다른 지역도 시군도 내내 비슷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없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에,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돼서 젊은 부부들을 잡을 수 있거나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들을 제시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파악했기로는 실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1억 4천정도, 1억 5천정도 되는데 충남 시군 단위의 여러 가지 지원되는 내용들이 파악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저희보다 열악하지 않은 조건이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 유가 있는 곳들도 훨씬 더 세심하게 보육시설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쌀을 별도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지역의 농산물들을 별도로 급식 말고 별개로 농산물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쭉 보면 안전공제회 보험료 같은 것들도 사실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어떤 금액을?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안전보험료.

○조동준 의원

안전보험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지금 그 예산목록에는 없었는데.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자체 사업비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그 상해보험으로 해서 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사업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자체사업 목록에는 없었는데. 답변에도 없으셨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자료가 잘못된 모양인데……

○조동준 의원

아무튼 그 부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냉난방비 기타 등등 해서 실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사실 아까 출산장려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경쓴다고 대폭 올렸다고 해도 1년에 겨우 3,000여만 원 아이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 저희가 비교할 바는 아니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이런저런 예산들, 쉽게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군 자체 사업예산으로 잡아서 나가는 예산들을 생각해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금액이잖아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출산지원금 관계는, 대단히 죄송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 3억 9천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자료가 좀 오류가 있는 모양인데요. 금년에도 아마 이 정도는 못되더라도 3억대 이상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3억 9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작년에 나간 것이.

○조동준 의원

양육지원금하고 합쳐서?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양육지원금하고 합쳐서 나가는 금액이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조동준 의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나 이런저런 출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절박하다고 하는 문제로 보면 우리가 더 절박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조차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신경쓰는 것 같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들로 해결해야 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수준을 맞춘다거나 어쨌거나 좀 더 성과를 내려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그리고 시설도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있어서 이런저런 하드웨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몇십 억짜리 건물 그냥 짓고 활용방안도 없이 방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실장님께서 사회복지실에서 다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인구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된 내용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관심과 정책에 집중이 필요하지 않냐 확대가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에서 지원되는 자체사업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작지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려갔으면.

그 금액이 실제 다 반영을 해도 전 수억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조동준 의원

예산부서나 기획실하고 협의가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렇게 하고요, 오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아진 의원님께서 '669가구를 추천했는데 왜 358가구만 확정이 됐느냐?' 그 질문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238가구가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실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 73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개 이장들이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장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본인 얘기를 안 듣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나는 않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 그리고 수급자의 경우는 자가 가구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해서 73명이 제외대상으로 해서 있고 현재는 73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238가구는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답변주신 것 중에 그러면 그 669가구 중에 358가구가 확정이 됐고 그 나머지 238가구가 다시 또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김아진 의원
그러면 자격들은 다 되는 분들인가요?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급자가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 부분도 미리 면에서 신청을 할 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다른 분들을 발굴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지금 이 보육환경개선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린이 급·간식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기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급·간식비가 20년 동결로 1,750원밖에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개정이 돼서 작년에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군은 다행히 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따로 조례개정까지 해서 35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고품질의 급식을 아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어린이집마다 편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4천원 정도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데는 그냥 기본적인 2,300얼마 정도 그 정도의 급식비를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먹는 것이 오전·오후 간식하고 점심하고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3천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저렴한 급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아이들이 균형있는 영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성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이정성입니다.
○의장 나학균
그러면 생태산업 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산단에 투자유치현황은 제가 7월쯤에 한번 받았던 것은 구체적으로 MOU나 이런 게 아니고 입주 했거나 착공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예정인 게 한 11개 업체인데 혹시 늘어난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지금 현재 분양된 거만 13개 업체고요.

○조동준 의원

13개? 그러면 2개가 추가가 됐나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분양면적은 약 7만 3천 평. 그래서 공고면적 대비 현재 43% 분양이 됐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그 기업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선전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열심히 투자유치 활동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호 기업인 선진뷰티사이언스가 화장품 원료업체고 지역의 업체가 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다양하긴 한데 식료품 분야가 좀 눈에 띄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규모가 좀 크고 근로자수도 많이 고용……

○조동준 의원

그쪽이 실제 인력창출을 좀 더 많이 하는 업체인 것 같고요. 제가 생태산업 특구지정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기업유치현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지정을 받고 어떤 생태산업의 메카로서의 그런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정부대안사업을 통해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입주해 있고 또 이 2개의 연구기관들이나 생태산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산업과 연결해서 그런 전문적인 기업들은 사실 아직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지금 바이오…… 특히 저희들이 자원관 그 다음에 생태원이 주로 바이오 관련기업이라고 보고요.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없고.

지금 현재 해양바이오 관련 클러스터가 한 6만 평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면서 지난주에 벤처기업 한 12개 업체가 지금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 조합을 저희들이…… 그쪽에 산단이 완벽하게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12개 기업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협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MOU정도 수준인가요, 협약은?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렇죠.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초의,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부대안사업을 유치하고 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이 설립되면서 지역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계획서들에 담겨져 있었어요. 연구 성과들을 지역농업에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파생된 산업분야로 연결해서 그와 연결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설립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연계들을 담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안 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질문에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걸 저는 우리 서천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관계자들도 정부대안사업의 어떤 취지나 그런 역사성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워버리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만 탓해서는 안 되고 사실 우리군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건 과장님이 답하실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태원하고 자원관에 저희가 파견 나가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사실 이런 지역연계를 위해서 2개 기관에 저희가 파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상은 잘 연계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많은 문제점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조직 내부의 어떤 사정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연계에 관련된, 우리가 처음에 정부대안사업을 받고 우리 서천에 중요한 땅들을 내주어서 만들어진 국립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연구성과들이나 연구기관과 연관된 생태산단의 활용성에 대해서 좀 많이 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데 잘 안 되시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생태관련 특구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구를 지정해서 관련 특허출원이나 이런 연구성과물이 그대로 기업한테 실제로 혜택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관련된 거는 바이오는 아니지만 현재 항공보안장비에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제안하신 이런 연구특구라든지 아니면 규제특구라든지 지역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특구가 군수 답변처럼 사실 기존에 다소 전체적으로 남발된 경향도 있고요. 지역에서 그만큼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지정만 해줬지 사실 다른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한 다른 지원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특구지정된 효과들을 제대로 본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들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규제특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연결된 지원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특구가 지역의 특화사업들을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많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고 하는 연구기능을 갖는 국립기관을 2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개발특구도 더 적합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앞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사업화 한다는 건 실용화 한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연구 성과들이 실용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또 다른 실용화에 대한 연구나 그와 관련된 R&D기관들이 들어와야 저는 그게 시너지가 돼서 파생된 투자들이 발생하고 관련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구개발특구가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고요.

그전에 저는 현재 생태원과 자원관에 대한 관계성들을 좀 더 회복하고 어쨌거나 그들을 활용해서 우리 서천군에 도움 되게 만드는 건 우리군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저도 그 2개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서 '에이 뭐 그런 부탁할 필요 있을까?' 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쉬운 건 우리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방법들을 찾고 2개 기관의 성과들을 우리 서천군에 녹아들게 확산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협의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지역에 대한 협의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원관하고 생태원에 대한 연락체제 이런 것만 되어 있고 파견만 되어 있지 협의체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우리군에서 다시 노력해서 파견 나가계신 직원분들의 역할도 제고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2개 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대학과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선 짧게 하는데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졌지만 예를 들면 생태원이나 자원관이 그냥 단순한 관람시설로 뭐 공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제 어떤 이런 생태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산업으로 미래의 가치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귀중한 자산을 우리 서천에 유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5년, 10년 뒤에 그 빛이 더 발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지점에서 같이 고민을 가지시고. 일단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연관돼서 답변하셨겠지만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갈수록 생태원 직원이라든지 자원관 직원들이 대안산업에 대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건 사실이고.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건 저희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연구직들이 한 160여 명 되거든요. 생태원이 한 90여 명 되고 자원관이 60여 명 되는데 그 자원들을 사실은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들어서게 되면 관련 기관들을 더 유치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기업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려고 하거든요. 소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국가생태산단이라고 하는 것 국립생태원, 해양생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태산업과 관련돼서 명실공히 사실 가장 독보적인 기관과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잘 꿰맞춰야 보석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를 포함해서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정부나 이쪽에서 관심을 더 끌어내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보안장비 인증센터 외에 실제 생태분야나 아니면 해양생물분야에 또 다른 연구기관들이 갈수록 요구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과장님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업무도 많이 하셨어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골프장 신규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골프동호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저도 보도자료 보고 안 사항인데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클럽만 해도 50여 개……

○이현호 의원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골프동호인들이 외국을 나가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지금 골프장 특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사업

진행이 더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사실 골프장관련 리조트사업들이 대규모로 개발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18홀인데 30~40만 평 정도가 필요한 면적이거든요. 그런 대규모 면적을 찾는 문제, 그다음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개발방식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문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했지만 지금 현재 상당한 단계에 올라와있고 그래서 작년에 입지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상당히 경험도 많고 실제로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직원들이—저는 못 갔습니다 바빠서—벤치마킹을 양양이랑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수집했고 이것이 정리돼서 추진방식이 정해지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해서 기업체들을 공고를 통해서……

○이현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양양이 지금 방식이 복합관광단지 방식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쪽은 리조트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외국에 못나가니까 전부 국내로 몰리다보니까 아주 방 하나 잡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골프장도 대기를 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현호 의원

말씀하신 복합관광단지 개발방식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골프장사업이 개별사업이라기 보다는 관광화 단지를 하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리조트나 골프장 이런 것들이 관광기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가족레저형 친환경 골프장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9홀로만 생각하셨다가 그게 사실 9홀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친환경이라는 말이 맞나요? 골프장 하면서.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골프장이 대부분이 보면 주변 환경을 아무래도 훼손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9홀 정도의 골프장을 유치하고 싶어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아마 내거신 것 같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9홀은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18홀 이상은 가야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또 한 가지 골프장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리조트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내에 사실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대규모 숙박시설이.

골프장과 연계해서 가족형으로 리조트에 묶고 골프동호인들은 운동을 하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세부사항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의논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개발방식이라든지 공고를 앞두고 지침이 마련되게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대규모 숙박시설이 몇십 년간 굉장히 군민들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골프장을 하면서 골프장만 건설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을 안 받으려 그래요. 같이 동시에 관광호텔과 리조트가 같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종합화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안을 잡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추려지고 있거든요.

○김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대학 유치 전략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저는 대학유치전략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제 질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사실 폴리텍대학이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 5년째 이상 속도를 사실 못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이 폴리텍대학 문제였어요. 그래서 화요모임 때마다 항상 이 문제를 거론하고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이게 빨리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하여튼 시작한 해가 2016년도인데 2017년도부터 기재부, 경제장관회의, 교육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심층분석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고 이런 안들을 내보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상태에서 폴리텍대학 법인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동안에는 진행 안 한 건 아니지만, 예산확보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했지만 2019년도 작년에 와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면서 폴리텍대학 법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취업문제에 대해서 가장 1호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과연 해양바이오 폴리텍대학이 여기에 유치가 됐을 경우에 '그 학생들 모집했다고 보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디로 취업시킬래?' 그에 대한 자료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실 타당성용역 자료에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해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저희 나름대로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취업을 주로 하는 걸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자체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니고 자문형식으로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법인에 제출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해 2019년도 5월달에 전문가 TF팀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 회의는 뭐냐면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작년에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작년 말에 마무리 단계에서 영천 것이 터지면서 잠깐 이게 보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사업계획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동준 의원

늦게 진행되는 것이 죄송할 바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진행이 된다면 다행인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부정적인 핵심이유가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아무래도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가장 먼저 이유로 들었고 아무래도 폴리텍대학 법인은

고용부 산하에서 그 관련법이 틀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고. 교육부는 그거를 또 인가를 해줘야만이 폴리텍대학 법인이 운영이 되니까. 그렇다보니까 서로 부처 간에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도 지금 구조조정 하는 판에 폴리텍대학 법인에서 자꾸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을 자꾸 설립을 한단 말이죠, 신규로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 요인이……

○조동준 의원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건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대학에 새로 들어올 아이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학령인구 거기에 대해서 폴리텍대학 법인…… 고용부에다도 하는 얘기고 교육부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학 못 들어간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졸업하고도 취업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령인구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폴리텍대학을 추진 안 해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조동준 의원

그 말씀이 정확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일괄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폴리텍대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텍대학은, 긴 설명은 다른 건 생략하고, 지금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게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고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폴리텍대학이라는 이름은 붙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대학과는 다르죠. 그래서 교육부가 얘기하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는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폴리텍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교육부는 그걸 모르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런데 되도록이면 폴리텍대학에서 좀 쇄신 지원 했으면 좋겠고 잘 안 되는 대학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신규로는 안 해주고 싶고 그런……

○조동준 의원

제가 교육부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학령기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 연령의 감소라고 하는 것으로 인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이 폴리텍대학이 학령기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학과 다른 성격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 이유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는 내막은 그러니까 정작 이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학령기 인구 감소라고 하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부도.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럴 것 같아요.

○조동준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걸 포기하자, 어려운 거 왜 하냐' 이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학이 우리서천에 왜 필요한가요? 대학을 유치해서 우리 서천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지역에 왜 대학을 꼭 유치해야 되는가, 지역적인 정서가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는 청양 같은 경우도 도립대학이 있고 그런데 서천군만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시군으로 얘기가 되니까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라도 하나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정서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생태자원을 이용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현재 대통령한테 경제투어 때 우리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클러스터

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그러니까 자원관이라든지 생태원, 그다음에 '산'은 산단에 있고 기업들, 거기에 핵심적으로 '학'이 대학인데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젊은층의 유입으로 인한 어떤 계층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지역이 활력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젊은층의 유입으로 지역이 활력을 찾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가 활성화 되겠고 유입도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겠다 이런 이유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텍대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대학이 우리 서천에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 잘하셨고요. 플러스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대학이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들의 필요성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대학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대학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죠, 지역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폴리텍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보면 대학으로서의 기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폴리텍이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다 있는데 우리만 없는 대학이 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아까 말씀하신 폴리텍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일반대학과는 사실 거리가 있다…… 실제 213명 정원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225명.

○조동준 의원

225명, 그 정도 인원에 사실 여기 얘기 나온 것처럼 학령기 젊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취업을 원하거나 실직자거나 이런 기성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과도 저희가 개설 계획에 그렇게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바에 의해서 폴리텍대학을 계속 점검해 나가긴 해야지만 이제는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간에 말씀하셨던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생태원이나 자원관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나 이런 것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을 배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구나 이 폴리텍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텍대학은 주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주로 어쨌거나 현장에서 기술인력으로 투입될 기술을 배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리 서천이 가지고 있는 이 기반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은 폴리텍보다는 또 다른 대학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단위의 대학 중에 해양관련된 학과가 없는 게 충남이 유일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남대는 사실 대전하고 충남이 분리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그런 필요성들을 감안하면 저는 도하고도 같이 협의해 볼 수 있고, 아까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국립해양대학교가 아마 서산에서 유치하려고 했다가 부산으로 넘어갔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죠. 우리 도가 상당히 해양수산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양대가 도립대학교로 있는데…… 아니, 저는 충분히 뭐 예를 들면 도

하고 협의해서 해양수산분야에 특성화된 도립대학교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태원과 자원관 하고 연결해서 관련된 특수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들을 못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서 학령기 인구가 감소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생태산업이 해양바이오 산업들이 미래에 정말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국가도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봐요, 중앙 정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학문이나 학과들은 학교는 개설이 돼야 되는 것이 좀 교육부에게 설득력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는 아닌데 제가 예를 들었던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가를 추진 중인데 이렇게 새롭게 요구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상당히 부지조성까지, 대통령까지 왔다가서 부지도 보고 갔기 때문에 인가가 확실시는 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폴리텍에 이렇게 많은 열정과 열의를 들이는 것의 일부를 새로운 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좀 쏟아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저희들은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상당 기간 동안에 폴리텍대학 부분은 진행이 되어 왔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수립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게 되면 실시계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포기는 저희들은 절대 그동안에 생각도 못했고요. 교육부도 최근에 전향적으로 조금 담당 사무관이 바뀌면서 캠퍼스에 대해서……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데 포기하자는 건 아니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조동준 의원

이것은 다른 제반 계획서나 여러 가지 부지나 그것들을 우리군 입장에서는 거의 다 확보를 해놨잖아요. 마련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승인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쓰지 않아도 사실 될 문제예요. 교육부만 만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전략을 짜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건 이것대로 추진하는데 그 힘을 여지들을 더 다른 분야로 옮겨가서 고민해 보자는 차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래서 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왔던 폴리텍대학을 정상적으로 추진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특수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2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진행 해보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올해 53억인가요,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54억.

○조동준 의원

54억 예산에서 만약에, 지금 어차피 만약에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기재부 입장은 뭐냐면 54억 가지고는 충분하게 설계까지 할 수 있으니……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좀 기다려 달라' 우선 그거 가지고는 당분간은 추진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기재부에서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한번 기재부를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라도 어느 정도는 담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를 할 사항이고.

지금 예산문제는 작년 외에는 계속해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조동준 의원

제가 일괄질문에서 예를 들었던 몇 가지 사

안을 포함해서요, 단순하게 위안을 삼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 대학을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군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왜 필요한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대학을 통해서 연계돼야 될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까 핵심적인 우리의 당위성, 그러니까 우리 서천군의 이런 이런 기관으로 이런 대학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앞에 2가지 문제와 접목되는 대학을 아무튼 저는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 갖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저희들 입장이 똑같고요.

○조동준 의원

한번 그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군수님이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자원관이든 생태원이든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아까 생태원이 몇 명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연구원이 93명인가 96명인가……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최초의 생태원 계획서를 보면 최대 500명까지 했고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250명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턱도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계속 올려나가는 추세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종복원센터라고 있어요. 그게 강원도인가 경상도에 있는데 그 인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게 되죠.

○조동준 의원

생물자원관도 포함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아니요, 합치면 한 160……

○조동준 의원

순전히 생태원 여기 서천에 근무하는 연구진들만.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렇죠. 구십몇 명. 자원관에 육십몇 명.

○조동준 의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연구진 확보가 당초 초기계획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국내 대학들에서 그 관련분야들과 관련해서 연구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건이 문제다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외국에 학부생들을 확보해서 외국대학과 연계해서 석·박사나 이런 과정들을 밟게 시키는 그 육성하는 계획들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저는 특수대학원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생태원이나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교육부에 접근하고 필요하면 해수부하고 자원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접근하고 해서 1개가 아니고 2개, 3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더 신경써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우선 대학유치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뭐 손적어서 못받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투자유치과가 과연 대학유치를 위해서 올인 할 수 있는 체계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애는 쓰고 계시지만 2트랙으로 하기는 대학유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교육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이런 저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천군의 불찰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데에서 틈틈이 내려다봐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우리군이 생태원하고 해양생물자원관하고 전혀 유대관계가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 지금 자리 때문에 가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동의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 업무를 안 맡고 있어서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의장님, 기획실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이정성 투자유치과장은 잠깐 들어가시고,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기획감사실장 한덕수입니다.

○김경제 의원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와 함께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투자유치과에서 투자기획과 기업을 유치하는 투자유치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오늘 답변하신 것도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확인하고 부딪혀보고 한 대화내용이 아니고. 이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국립생태원이나 특히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를 해서 잘 협력이 돼야 대학유치가 순조로워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전혀 지금 연계가 되고 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전에 폴리텍대학 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김경제 의원

아니, 대학유치를 떠나서 지금 전혀 유대관계가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전처럼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전처럼 이라는 게 뭐냐면 전에는 100을 했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에도 한참 모자랐는데 지금은 사실은 파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도 아시고 집행부도 아시고 의원님들도 다 아세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조동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갑갑해요. 우리가 진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뭔가 끌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폴리텍대학 뿐이 아니고 어떤 대학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역의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2개의 엄청난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그 말씀 분명히 맞고요. 생태원이나 자원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다만……

○김경제 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도저도 아니면 왜 파견을 합니까? 진짜 그 자리는 파견되면 매달려서라도 서천군과의

연계고리를 만들어 끌어내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현재는 그런 구조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나가계신 분들한테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노력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만 애탈 뿐이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해양자원관에서 우리 파견되신 분이 6개월까지 자리도 없었어요. 책상 의자도 안 줬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핸들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붉어져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유치는 이제 투자유치과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행정의 수장이 진짜 직접 관리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애도 많이 쓰고 뭐 직접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제 의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께서 직접 뛰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근래에 제가 확인한 바로 지금 교육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우리가 이런 때에 추진력 있게 어떻게 우리 서천군이 더 교육부나 또 폴리틱대학 본부에 우리의 당위성을 자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장님 이렇게 발언대에 잠깐 말씀해주십사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예.

○김경제 의원

들어가 주시고요.

○의장 나학균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교육부에서 다소…… 그게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우리가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또 들은 말씀 공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복잡한 얘기는 못드리고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김경제 의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자긍심도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유치하는데 뭐 첫 번째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앙에서 이 얘기 들으면 우스울 일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경제 의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김경제 의원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 서천군의 당위성도 우리가 확실하게 구두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또 해양바이오와 관련해

서 해양자원관과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제시하고 협력을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게 뭐 계속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곳에 올인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다양화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 대신 폴리텍대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 내년까지 목표를 두고 아니면 안 된다는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진짜 희생이 따라야만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에 대한 아쉬움이 뭐냐면 정치권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걸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학유치라는 이 당위성을 실현하고 우리가 진짜 결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기업유치 때문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으신 줄 알지만 지금 일부 해양수산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엊그제 의회에 보고도 했는데 11월달 임시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조직개편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는 기업유치 전반에 대해서만 올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저런 잡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는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어떻게 보면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대학의 필요성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연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취업연계 가능성을 보고 교육부에서도 설립인가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충남도에서 대전·충남으로 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된 거 알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고용부에서요?

○김아진 의원

예, 공공기관…… 지금 우리 충남도, 대전지역에서 공공기업, 공기업 의무채용 확대가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보도된 거 봤습니다.

○김아진 의원

기관도 확대가 되었고 비율도 2020년에는 24%, 내년에는 27%, 22년까지 30%를 의무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역에 대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지역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것이 채용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지역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태까지 지금도 한 발짝만 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 계속 폴리텍대학이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는 대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트랙으로, 여러 대학이 유치가 되면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청

년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에서 또 연계되는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지금 저도 좀 답답한데요. 사실 이게 갈듯 갈 듯 하면서도 이게 막히고 막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가능성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 한 순간만 뛰어넘으면 이게 가능하고 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에 올인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력을 또 다시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잘한다는 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 해보고.

아까 김경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올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각오로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라'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2트랙으로 가는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아진 의원

지금 현 시점에서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성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자치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의장 나학균

그러면 해양수산과 조직 확대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관련 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과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어업지도선 그 팀으로 해서 승격하는 그 부분 이외에 다른 것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 외에는 아직 없고요. 해양수산정책팀을 어업지도팀으로 분리하는 것, 그래서 해양수산정책팀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어업지도팀도 나름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현호 의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더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이현호 의원

그런데 해양수산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천군의 직제가 보령처럼, 보령 같은 경우가 해양정책과하고 수산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에 해양수산과는 수산과 업무를 수산직렬에서 하시고 그리고 해양정책과가 신설이 돼서 그 부분은 행정직렬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과 분리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일괄 답변 시에 해양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수산업의 미래 산업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산관련 업무의 기능강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근 지자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해양신산업 또는 해양관광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 업무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해양신산업 관련 해양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그리고 해양관광은 관광축제과에서 사실상 이렇게 업무를 세군데 나눠서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양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해양기능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우리군 실정을 감안해서 신규 행정수요나 제반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쉽게 말해서 팀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보강해서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호 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해양과 증설이나 충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과는 사실상 별도 신설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정원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 신설 같은 경우는 팀이 4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직원이 12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타 부서에서 인력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과 신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팀 신설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호 의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해양관련 관광이나 해양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군에만 있는 아니라 투자유치과나 관광축제과 이런 부분에 다 녹아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이현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같은 여건이면서도 다른 군과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서운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해양산업 뿐만 아니라 수산 그런 쪽에 해양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확대나 그런 부분의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이번 해양수산과 조직개편안 때 정책팀에서 어업지도선만 팀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팀만 별도로 어업지도팀으로 이렇게.

○김경제 의원

지난번에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도선들이 지금 승선인원들만 떼 나가는 격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지도, 단속, 법적인 대응까지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사실은 승선인원들이 법적인 대응까지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업지도팀을 신설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단속하고 나중에 행정처분까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현재 시스템대로 하는데 행정처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양정책팀에서 나름대로 역할분담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김경제 의원

역할분담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서로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격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승선인원들만 한정돼서 팀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지에서 일보는 게 중점이 아니에요, 지도선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어떻게 보면 승선해서 우리 해양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정확하게 분류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은 업무영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제가 각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또 기획실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직원 하나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금년도 상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한번 진단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 이게 어떤 과를 신설하고 큰 인력자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의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정부분 행정절차라는 게 있어서 입법예고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조례규칙심의회 이런 일련의 절차가 최소한 2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반기 내에 한번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보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김경제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계세요. 그런데 저는 행정의 수장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실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연말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올 말 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원 한두 분 더 강화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 한두 명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다른 조정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김경제 의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추진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들 참 편해요. "검토하겠다" 하는데 어쩌다 보면 의원 4년 내내 검토만 하다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의지 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100% 맞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못지않은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하여튼 올 연말까지 시설팀 운영은 어렵다 하더라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인구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사실은 10분 내에 나와야 됩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구동향이라든가.

월말에 가서 대충 지나서 월말 통계를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진짜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런 게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연말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시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주민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주유소 설치사업이나 아니면 장례식장, 석산개발, 레미콘공장 유치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축사하고 태양광이 봇물 터지듯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시설물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아진 의원

대부분 한번 설치를 하면 환경적으로나 수십년 동안 유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단계에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군청 앞에서도 시위도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 시에 어떻게 하고 있으셨나요? 정보공유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도 주민기피시설 타 부서에서 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도 한번 통계를 봤어요. 축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이 한 26건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민원이 한 7건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아마 32건에 6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한 185건에 9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175건에 한 7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축사 같은 축종별 거리제한이 전에 보다 상당히 강화가 돼서 지금 돼지, 개 이런 5종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1,500m 정도하고 그 외에 소, 젖소 이런 부분은 아마 한 600m 정도 거리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축종별로.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제가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전에 비해서 산지, 임야

의 경우에는 평균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 정도로 이렇게 강화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무료에서 100%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버섯재배사가 주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농업관련시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하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걸 보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각종, 아니면 주요정책 수립 시에 주민과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걸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대응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갈등관리심의회를 올 하반기에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제가 차후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을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미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질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뒤늦게 알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이런 시설이 접수가 되면 각 읍·면 또 마을에 직접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조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아진 의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효과는 조금 있다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극한적으로 상당히 시위가 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돼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발굴추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이 다소 격감,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아진 의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저희 의원들도 지금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러저러하게 고민들을 하시고 주민기피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자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을주민들하고 사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군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나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주민동의를 첨부해서 와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아진 의원

그럼 그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승인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아진 의원

지침대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언급하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주민기피시설허가가 안건으로 해당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진단결과 2등급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갈등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방안 이런 모색 등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로 주민기피시설,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아진 의원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려서 지표를 좀 더 확대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지표가 좀 더 확장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한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안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도 또 다른 면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사실 두 번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한 번은 지표 개선되는 거에 대한 의결이었고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안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민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정책적으로는 갈등해결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많지 않다고 보여져서 이왕에 만든 거니까 이걸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갈등을 없애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게 조금 아쉽고요. 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들을 확대를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민원에 관해서 주민설명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데 공청회가 열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아진 의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도 공청회 하겠다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나학균 의장님도 건의를 하셔서 축산에 관해서 공청회를 하라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이 호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천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교육예산이 어떤 적절한 부분에 사용되어지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이현호 의원

군수님 답변이 '정산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이현호 의원

그러면 서림학당 운영에 대해서 이 근거로 이 자료를 볼 때 서림학당을 운영축소를 해야 되는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서림학당 운영은 축소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현호 의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기초가 돼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우리가 만족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서림학당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학생들이 상당히 호감도가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가 닿으면,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 교육예산 또 선진사례 등을 비교검토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점차 늘려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현호 의원

말씀하셨듯이 정산검사나 만족도 이런 부분, 만족도가 또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산도 단순하게 해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들이 더 포함이 돼서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 또는 교육지원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은 지금 충분히 되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금년도도 한 2~3번 정도 만나서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이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보완할 문제점이나 이런 걸 검토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금년도는 초기에 조금 하고 초기 이후로 지금까지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초순에 한번 교육청하고 학교 그리고 교사, 군청 이렇게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서림학당 운영부분이나 아니면 학교교육경비, 예산전반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예산에 대한 검증은 지금은 우리가 어찌됐든 보조금 관리 조례나 교육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거기서 정산검사, 수요만족도 조사 그런 부분에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육예산이 주로 학교에다 지원이 되다보니까 학교 교사분들이 업무부담 그리고 과중으로 인해서 피드백 같은 것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원활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호 의원

제가 자꾸 교육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교육예산을 줄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필요한 곳이면 예산을 늘려야 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교육지원청과 어

떤 협력관계도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정주여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예산이 부족함이 없이 교육예산이 사용이 되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서천사랑장학금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서림학당도 결과적으로 장학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하고 있고 재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장학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군에서 또 관여 안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금이 얼마까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127억 정도 이렇게.

○조동준 의원

127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100억을 목표로 했던 것이 넘어서서 벌써 127억 됐는데, 저는 몇 해 전에도 사실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요. 물론 서림학당도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저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걸로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서림학당도 그렇고요, 좀 정책흐름에 따라서 변했으면 좋겠다.

그때 인재 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었잖아요. 그러니까 127억이라고 큰 장학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식으로.

갈수록 외지로 나가는 것들이 인구유출이 심각한 문제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는 지금 외지로 나가도록 권장하는 인재육성을 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려면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직장을 다니려면 외지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와 함께 그러면 지역에 어떻게 정착할 건가, 지역에 정착하는 아이들은 어떤 상태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장학회 이사진들하고 많은 논의는 했어요.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일정부분 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전향적으로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려고 이사진

들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학금도 그전처럼 계속 주는 게…… 그전이야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얘기가 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조동준 의원

그래주세요.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어쨌거나 지방재정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가 저희가 직접 교육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조동준 의원

그래서 저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속에 교육재정을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까 사회복지실 얘기에서도 좀 드렸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건을 더 좋게 해줘도 남기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는 거보다 더 좋은 조건들의 교육환경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는 정부가 여전히 그 지방재정법을 고수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악한 지역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아까 이현호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주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여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상황에서 큰 문제인데 우리가 127억이라고 하는 장학기금을 모아놓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집행한다고 하고 또 장학금의 성격으로만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다 떠나간 뒤에 200억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행히 함께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사님들과 운영주체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다 선정이 되고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이사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동준 의원

관계가 사실은 좀 애매하죠. 우리가 사실 개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다 놔둘 수도 없는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하긴 해야 돼요.

○조동준 의원

지금 장학회 직원이 2명인가요, 1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1명.

○조동준 의원

그냥 기본적인 행정보조 정도의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아니요, 장학회업무는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장학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이런저런 생산적인 일들이나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기는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건 한계는 있어요.

○조동준 의원

그래서 결국 인원의 문제긴 한데 우리부서에서 해당 교육팀의 직원들이 같이 겸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장학회를 더 내실화시켜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경제과에서 지역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장학회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127억 정도의 큰 기금을 모았기 때문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기금을 다 쓰고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필요 하다면 다른 분야에서 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들도 장학회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학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사실은 조동준 의원님 말씀대로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군이 초등학생 수가 2018년도에 1,957명에서 70명 정도씩 계속 줄고 있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학교는 4자리 숫자에서 3자리 숫자로 내려와 있고.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보면 같은 폭으로 50명에서 70명 사이로 계속 줄다가 19년에서 20년 사이에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200명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내년에는 이게 더 심각할 걸로 지금 보여져요, 지난 통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학회가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예전에는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됐어요. 물론 지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계속 끌고 가야 되냐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물론 서천사랑장학회가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127억을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학부모 입학금 보태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유능인재로 키우자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이제 장학회가 127억이라는 기금도 있고 이제 학교급에 버금가는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진짜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서 그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는 구조,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제가 서천사랑장학회와 관련해서 기업인의 밤 같은 데 가서 보면 수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다고 사례하는 학생들을 가끔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우리 서천군에 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사례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천장학회도 변해야 된다. 그런데 변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군이 그러면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거냐?

저는 적극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도 하고. 지금 일부에서 서림학당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킨 후에 이런저런 부작용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가 달게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 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서 예를 들어서 반토박이 난 이후에 100억이 있으면 뭐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김경제 의원

공감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물론 군에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할 텐데요. 서천사랑장학회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제 의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어떻게 보면 반론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관계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경제 의원

우리 조동준 의원님이 앞서 질문하셨는데 100억을 만들자 해서 127억 만들었어요. “자, 이제 150억 만듭시다!” 얘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의미 없는 짓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제 의원

아까 사회복지실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천군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낮에 프로그램 1~2개 하고 일주일에 1~2개 하고 문 닫아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밤낮으로 주야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외지에 있는 관람객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고 이런 자리의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역할들이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서천사랑장학회도 앞으로 그런 운영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장학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더 선도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경제 의원

얼마든지 우리 서천사랑장학회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분명히 만들 수 있고 지금 올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학년일수록.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걸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학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제 의원님이 끝에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서림학당 운영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면으로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그 사이에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언제 또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기회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온라인수업도 지난번에 일정부분 했는데요. 나름대로 호응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그때 전향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100명 들을 아이들이 더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기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예.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재무과장 박범수입니다.

○의장 나학균

그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토지, 건물해서 2만여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전수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 적은 있나요?

○재무과장 박범수

토지 건물 포함해서 21,000여 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재산관리관별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수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현호 의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업은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범수

그게 국비 확보할 경우에 사업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필지당 가격이 있어요. 조사에 필요한 단가가 있어서 전수까지는 조사가 안 되고 부서별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필지를 위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호 의원

말씀하신 건 표본조사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재무과장 박범수

표본조사…… 뭐 표현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현호 의원

이 사업이 6천만 원이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이현호 의원

공모사업 6천만 원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재무과장 박범수

한 해에 다 마무리 짓지는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객관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외부에 위탁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걸로, 혹시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박범수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는 걸로 보면 약 2억 5천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현호 의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범수

예.

○이현호 의원

저는 전수조사가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일반 읍·면이나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도 어떤 관행이나 전임자가 관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한 번쯤은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함으로써 미리 담당자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전수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질의할 게 없네요.

○재무과장 박범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가능하면 말씀하셨듯이 실과나 읍·면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표본조사 식으로라도 한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게 공유재산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어떤 불법시설물, 무단점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예,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문화진흥과장 한무협입니다.

○의장 나학균

그러면 문화재 관리와 한산모시관 및 식당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문화재 관련된 질문은 다음에 이현호 의원님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산 모시관이 운영된지가 31년 됐어요, 보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사실은 운영비만 해도 약 130억 가까이 되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운영비가 186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많이 있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사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모시관을 운영해 왔어요.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충되고 제1회 저산문화재와 비교하면 한산모시관이 나름대로 규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은 확실히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나 군에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산모시관 시설들을 운영해 오는 걸 보면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시의 전통을 이어 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대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설보존 하는데 급급해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그래서 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운영계획을 좀 재수립해서 진짜 한산모시를 통해서 서천을 홍보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서천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안에 한산모시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번 달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시산업과의 연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어렵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곳을 찾는 분들한테 메리트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산모시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산모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공예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가 제품화를 한 모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시가 어떻게 심어져서 모시가 어떻게 가꾸어가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저는 이제 우리 한산모시관 주변에서 진짜 모시를 볼 수 있고 모시와 같이 경험하고 모시와 같이 어루어질 수 있는 모시관이 돼야만 이 장래 우리 모시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운영해 간다면 그저 문 열어놓고 그냥 몇 분 오셨다 가는 거 기다리는 정도.

죄송하지만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변환이라기보다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진짜 시대에 맞게 뒤집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안에 전반적인 연구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가 연구용역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산모시관의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 담당하는 실과에서 먼저 다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하여튼 새로운 모시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 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절개지가 상당히 저는 매력있다고 보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제가 한 예로 모시문화재가 올해 있었다면 그 절개지를 이용해서 모시패션쇼나 거기에 중앙 무대가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절개지를 절개지로 치부하지 말고 절개지도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나는 매우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래서 절개지도 이번에 용역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거기가 풍암이라고 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지나다 보면 절개지를 전부 보완을 해요. 지금 풍암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모시가 서천한산의 기둥 아닙니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 관리 측면에서도 보면 참 우리가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자리다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시설관리가 안 되고 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이 시설관리는 어떻게 보면 얼굴입니다. 기와가 주저앉고 흘러내려서 인위적으로 막아서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못돌아 다니게 막고 그것이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6개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문제 다 해결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식당동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1994년 당시에 보니까 군유지 사용조건에 보면 나중에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건물로 인허가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2년마다 사용허가를 연장해주겠다고 계약을 해서 우리군이 필요 시, 철거요청 시 자진철거 하도록 되어 있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엊그제 같이 갔다 오셨지만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희 한산모시 관광지하고는 지금은 환경이 맞지 않다고 생각 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초창기 때는 우리 한산모시관에 기여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모시관의 시설보다 식당에서 꾸며놓은 그런 것들이 더 명품이 돼서 외지에서 구경하러도 왔었고 역할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냥 방치했어요. 우리가 군에서 그전에 보면 주변에 맞는 건물을 한번 개선 해볼까도 하고 이전도 추진해보고 했지만 이분들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우리군과 다툼이 많이 있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현재까지 많고요. 몇 년 전에도 계약서 관련 변호사한테 질문도 해서 답을 받고 있고 한데 계약서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군에 문제없다' 하는데 과연 군에서 지역주민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사실은 벌써 우리가 개선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 안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27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서 방치된 건물처럼 사용하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이 그 두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서천군이 자초했다고 봅니다. 인정하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하신 것도 보면 정확한 의지가 없으세요.

이거 해결하시겠어요?

저는 우리군도 일정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네.

○김경제 의원

우리군도 일정책임을 지고 서로 협의해서 진짜 이 장소가 군민들이 활용하고 우리 서천 모시를 홍보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눈쌀을 찌푸려요. 사실은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울타리 쳐서 막읍시다' 하고 싶어요, 지금도.

개선하실 의지 있으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감정까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토지는 군유지고 건물은 소유자 거니까 보상이 별로 안 나오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과연 이 보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죠.

○김경제 의원

협의가 안 되면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까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 해야죠.

○김경제 의원

어쨌든 행정대집행도 중요하지만 저는 군도 양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런 영업보상이든지 이런 본인들이 원하는 것……

○김경제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뭐 그런 데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저는 이 두 분의 책임보다 서천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임시시설로 불과 몇 년만 하려다가 27년을 그냥 끌어오는 걸 자초를 했어요.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고 행정대집행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그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고 봐요. 최소한 2021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부단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거기 환경에 맞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서천군이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내년까지 개선하시겠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는 한산모시를 선전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지역의 손님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군민들이 있다는 것은 그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기금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이현호 의원

다른 지자체에 없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전국에 지금 문화재 기금으로 별도로 조례 제정한 데는 없고요. 문화진흥 조례로서 기금에 대해서 명시한 거는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전승하는데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만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선 없습니다.

○이현호 의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문화기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문화재까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남산성을 갔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이현호 의원

남산성을 갔는데 그게 사실 남산성이 2011년에 복원계획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2014년에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못하면서 이게 문화재가 복원이 되면 오히려 관리가 수월한데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방치된다고 해야 되나요? 현장방문에서도 과장님하고 같이 갔지만 이게 올라가기 자체가 어렵고 또 올라가서도 굉장히 현장이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이현호 의원

그래서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국도비가 관련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기금쪽으로요?

○이현호 의원

아니, 기금 말고라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나 해서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기금이 있어요,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수입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배정을 해주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문화재 보수예산이 한 70억 정도 이상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15개 시군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그 정도로 매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현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비가 정해져야지만 우리가 군비하고 어떤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선제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실은 어렵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없습니다.

○이현호 의원

그래서 제가 문화재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군이 이게 지금 잘 된 일인지 복 받은 건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성이나 읍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읍성 같은 경우도 전국에 100여 개가 되는데 우리군처럼 3개나 되는 곳은 없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이현호 의원

그런데 이것들이 서천군의 자산이면서도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저는 이 문화재기금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군비라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좀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감사하고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단 국가든 도든 지정된 예산에서 배부를 해주니까 저희들도……

○이현호 의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이현호 의원

우리 문화재가 우리군의 관광산업이나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드렸는데 군수님도 노력하시겠다 이정도 답변이에요. 사실은 문화재가 특히 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문화재를 손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많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과연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향토문화유적이라든가 도지정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이 일이 선행이 됐을 때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 서천군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470~480개 되는데요. 내년도 일단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경제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바로 할 수 없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타의적으로, 보면 선양사업을 군에 건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군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에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선양사업에 관련해서도 같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서천군에서 이분들을 선양을 할 때 할 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선양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천의 역사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그래서 문화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보존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해주시고.

우리가 비문도 많이 있죠? 충효비문이.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충효비문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방치되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지정이 안 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그나마 자손들이 여기서 살지도 않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면적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에서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다 떠나가 있고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지역의 역사를 모르면서 어디 가서 무슨 행세를 하겠어요? 진짜 우리문화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번에는 꼭 전수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선양사업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홈페이지든…… 읍·면은 내용이 되는 대로 읍·면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먼저 문화재라는 것이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지역의 역사죠.

○김아진 의원

역사이고, 없어져 버리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문화재 복구와 보존에 대해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또 보수를 할 때 기존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증을 거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런 문화재를 정말로 귀중하다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예전에 2018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대유산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등록문화재로 하나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된 자료가 또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항에 조금 많이 모여있다고 보여지고 비인 쪽이나 판교도 지금 근대 문화에 관해서 관광사업으로 연결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그런 것들을 위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뉴트로 문화 트렌드에 맞춰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본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진작부터 이 종합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에 계속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지금 한산모시관 및 식당부지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모시관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식당운영이 아니고요……

○김아진 의원

모시관.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현재 식당에 대해서는 부지는 군유지고, 아까 김경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김아진 의원

과장님! 식당에 관해서가 아니라 지금 모시관에 대해서, 모시마을 조성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식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변해야 되는지 미흡한 점이 뭐라고 파악을 하셨는지.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마을이라든지 전시관 위주로만 조성을 했지 지금 현재되고 있는 체험활동은 거의 공예품 완성품 정도가 체험이지 처음부터 이게 절차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모시문화재를 하면 항상 예전부터 무료체험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체험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미니베틀 등.

○김아진 의원

그게 최근에 오히려 더 줄었다는 말씀들이 많고요. 제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운영방식이나 시설물 관리가 관광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개선 방안으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관광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요즘은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이 체험위주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비대면인데 비대면은 그건 별 효과 없다고……

○김아진 의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관광 트렌드가 지금 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트렌드로 자리잡은 거는 10년도 넘었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그거는 쭉 원래부터 가져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최근 관광하고 문화트렌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뉴트로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항에도 그렇고 판교에도 그렇고 그 관련된 시설들을 만들고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그러는데 우리 한산모시관 한산공예마을은 뉴트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통에 관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재가 됐고 전통을 오히려 중시해서 정말로 전통에 관련된 것으로 가야 맞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체험 위주로,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흥미를 유지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미흡한 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편성된 것이라든지 체험활동 하는 것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보셨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셔서 과업지시를 할 때 정말로 용역비만 아깝게 주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모시관에 식당동에 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분들도 군민이에요. 군민인데 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을 지금 내몰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점에는 우리군도 잘못이 있었고 내년 상반기에 협의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내쫓겠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뭐 다른 곳에 새로 지어준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보상문제는 군유지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27년이면 낡을 대로 낡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상액에 대해서는 협상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더 협상은 하겠지만 저희도 이게 제가 뭐 철거라기보다도 마지막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고요.

○김아진 의원

법적인 문제로 가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거를 그분들도 알고 있고 우리군도 알고 있지만 군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도 못하죠.

○김아진 의원

예, 그러니까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조금 더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시간이 좀 장시간이 돼서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담당하시나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문화재요?

○조동준 의원

예, 문화재 업무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문화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 문화정책팀.

○조동준 의원

과장님이 지금 문화진흥과에 계속, 오래는 아니시지만, 좀 계셔서…… 그런데 사실 문화재 업무는 전문분야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렇죠.

○조동준 의원

그래서 보통 문화재관련 학예사들을 채용해서 적게는 기본적으로 1명 정도는 다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신경쓰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3명 정도까지 운영하는 데들이 실제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아마 학예사와 관련해서 전혀 없었는데 이하복 가옥에 박물관 학예사를 한 명 채용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의원

그분은 사실 박물관 안내와 관련된 큐레이터와 관련된 내용만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재는 모르시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채용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문화재업무가 많으니까 지금 업무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조동준 의원

지금 그분은 원래 채용은 문화재분야로 뽑진 않았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학예사입니다. 이하복고택 학예사.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학예사 중에도 박물관 학예사가 있고 문화재 학예사가 따로 있어요, 자격이.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희는 박물관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분은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화재업무를 시키면 안 돼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뭐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충남도내에 문화재 업무를 전담하는 학예사가 없는 게 서천군밖에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파악 못했습니다.

○조동준 의원

파악해 보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의원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들도 그렇긴 하지만 공익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앞서 의원

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재업무는 사실 경제적인 효율성, 효용성 이런 거 하곤 사실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다른 시설은 지어놓고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고 활용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지만…… 또 하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의 향토사 박물관이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씀하신 비문, 지금 이런 자료들도 어디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비문 같은 경우에 서천군 관내에 금석루를 일제 조사해서 책으로 펴낸 게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사실 문화원이나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 텐데 저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등록문화재나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 서천군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정리하고 후대에 넘겨줄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결국에 저는 향토사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천재단 가서 잠깐 그 말씀드렸었는데 어디 한귀퉁이에 몇 개 유물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은 자치단체가 진짜 없어요.

한번 확인 하셔서…… 저는 우리 서천군이 역사 이래로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곳이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파면 파는 대로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법적으로 그걸 직접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런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나온 우리 서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는 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든 후대들이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향토사 박물관도 예산적인 부담이 되지만 이것이 공익적 가치로 저희가 반드시 어느 형태로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학예사하고 향토사 박물관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건의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농정과장 박명수입니다.

○의장 나학균

그러면 기존 서래야단지 외 9개 읍·면 단지 추가지정과 서래야 서브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기존 서래야단지 외 9개 읍·면 단지 추가지정 서래야 서브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만든지가 11년째인데요. 상광벼의 고품질 유지를 위해서 주력인 토질이 아주 양호한 현재 4개 면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9개 읍·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요건이, 저희가 품질유지를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물관리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그런 지역이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고요.

저희가 고품질 상광벼 거의 1,000핵타 정도 친환경과 일반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하나의 브랜드를 상광벼가 아닌 농협과 협약

을 해서 '친들'을 한번 육성을 해보고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과장님!

○농정과장 박명수

예.

○강신두 의원

서래야단지 미질이 좋고 하려면 용배수로가 잘 돼야 되고 원활한 것이 220핵타 정도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강신두 의원

그러면 금년에 4개 그쪽지역에 지금 20핵타 정도 타작한 거 보셨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타작이라는……

○강신두 의원

콤바인.

○농정과장 박명수

아, 올해 만생종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탈곡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단지별로 20핵타 이상 다 묶여져 있고 저희가 친환경 상광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농업을 하자는 취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고품질에서 친환경까지 고퀄리티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관리라든지 규모화가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신두 의원

서래야쌀 아직 한 군데도 콤바인 작업 안 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현재는, 아직 일부분만 납품을 위해서 통합RPC에서 선제적으로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대기 위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확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그럼 타작 안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감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박명수

현재는 정확히는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로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서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0%까지 예상을 하고 농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6% 정도 발표를 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대나 15%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지금 제가 비·서면을 두 번씩 다녀봤는데요. 지금 심지어 30% 이상 감량되고 정상적인 벼가 엎어지지 않은 거, 도복이 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오지도 않았었어요. 도복만 된 걸 와서 50%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복이 되지 않은 그 1필지에 약 30% 감량이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다시 보험회사에서 오라고 하다 보니까 20% 감량이 되는데, 20% 감량은 보험회사에서 해당이 안 돼요. 25%돼야 20% 감량 받고 5% 해당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가 의원 되면서부터 서래야쌀 때문에 매년 이걸 내가 묻고 질문해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래야 뿐이 아니라 어떤 논도 전부 다 감량이 많아요. 지금 금년에 비가 며칠 온지 아세요?

○농정과장 박명수

정확히 54일 왔습니다.

○강신두 의원

54일 왔으면 수도작이 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일조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신두 의원

그래서 감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명수

맞습니다.

○강신두 의원

그래서 옛날 어른들,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뭄에는 작물을 먹어도 장마에는 못먹는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 돼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강신두 의원

앞으로 9개 지역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이 온다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금년에 서서천농협 RPC에서 친들만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RPC에다가. 다른 종자는 받지 않고.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가 전부를 수매를 할 수는 없고요. 통합 RPC 지분이 있어서 6개 단위농협을 중심으로 농협에서……

○강신두 의원

제가 하는 말씀은 4,000원 줄 거 1,000원씩을 주더라도 13개 읍·면 골고루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특혜 줬습니까, 농정과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명수

농업에 있어서 저희가 고품질을 유지하는 부분들도 특정 고품질 유지에 따른 후생, 그러니까 농작물도 덤으로 농산물 판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쌀 관계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어서 쌀 소비에 문제가 없지만 7~8년 전에는 쌀을 벼를 팔아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서천군에서는 농협에서 전량을 수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통합 RPC와 개인 RPC 토탈해서 한 60%대가 매입이 됩니다.

그 외엔 외지상인한테 벼를 판매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가격으로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동일자금을 줘서 농업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서서천이라든지 서부지역이죠 서부지역에 약간의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 정책에 참여를 못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방법을 찾아서 서브브랜드라든지 이런 정책을 한번 다시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13개 읍·면에 제외한 서래야단지 쌀 판매가격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박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강신두 의원

그러니까 농정업무를 그래서 불만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농정업무를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13개 읍·면에 같이 치우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 서서천농협 두 데에서 어제 친들만 전부 받고 있는데요. 육답에는 아주 특등이에요, 특등. 지금 현재.

제가 서래야 자꾸 얘기를 하실 때 부사방조제는 서래야를 심어서는 4~5년이고 3~4년 안에 한 번은 좋을지 몰라도 일반 육답에는 서래야도 다 잘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치우지지 말고 농정업무를 제대로 13개 읍·면에 같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강신두 의원

군수님 답변서를 보면 '4개 읍·면 외에 서래야단지 조건이 부합되는 데면 단지지정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강신두 의원

내년에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강신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래야쌀이 80kg 기준 얼마나 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가 21만 7천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일반벼는요?

○농정과장 박명수

일반벼는 19만 원대 약간 못 갈 것 같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학교급식 등으로 나가는 쌀이 얼마에 나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학교급식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20만 원 초반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농정과장 박명수

일정부분 군비가 학교급식에 지원이 나가는 게 있고요. 이거는 통합 RPC에서 친환경쌀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 정미소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것도 보전 안 해줘요?

○농정과장 박명수

경기도 거는 저희가 보전을 않습니다. RPC에서 별도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김경제 의원

RPC에서 얼마 정도 보전해줘요?

○농정과장 박명수

그때그때 틀려서 그 물량은 정확히 산정을 할 수는 없고요. 20만 원대 정도 그렇게 통상 나갑니다.

○김경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친환경쌀 서래야를 재배하는 원인이 고품질을 유지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자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품질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제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건 현실이죠?

○농정과장 박명수

전국적 지자체에 쌀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래야쌀 단지 운영문제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단지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그래서 우리가 평균 서래야 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핵타당 지원금이 차이가 있죠?

○농정과장 박명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하고 서래야가 500, 500 정도 평균 잡으시면 되는데요. 약간 지원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금액이 많이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농자재 지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농자재지원은 우리가 쌀 생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의 효과를 못 얻어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소득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렇죠. 서래야쌀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쌀을 경작하는 분들이 '군에서 지원이 끊기

면 하겠느냐?' 물어보면 한 분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그건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명수

그만큼 농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김경제 의원

아니, 농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반미 생산하는 것만큼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경제 의원

자, 이런 지원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나머지 9개 읍·면에서 조성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여건이.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러면 그 여건이 안 맞으면 그냥 말을 거냐, 여건이 충족되면 해 줄 거냐하고 말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대안을 만들어서 거기도 우리 서천군에서 관리가 되고 지원이 돼서 거기도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제가 2014년도에 서래야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죄송하지만 일일이 다 분석해보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고품질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회의를 느껴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형평성이라는 게 서래야단지를 꼭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도 못만들게 생겼으면 그분들한테 뭔가 농정업무에 소외감 안 느끼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저는 우선 서래야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정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친환경단지를 유지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의원님께서 서브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양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 면에서 서래야쌀 단지에 속하지 못하는 비인·서면 쪽 지역에서 불만이 있어서 그쪽도 같이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건이 된다면 그쪽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와 별도로 저는 서브브랜드는 그대로 다양화를 시키되, 지금 우리 서래야쌀이 고품질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품질이다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브브랜드가 아니라 저는 하이엔드로 가야 되지 않나, 오히려 최고급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품종도 개량하고 시범재배단지도 좀 더 많이 실시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11년 동안 유지를 해왔지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품종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더…… 서브브랜드는 지금 보람찬이나 친들벼 쪽으로 이미 발굴을 하셨으니까 고품질 최고급화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어려우시더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천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나학균, 강신두, 김경제, 조동준,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7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부군수	이교식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재무과장	박범수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농정과장	박명수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건설과장	조남용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보건소장	김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대철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정진형
수석전문위원	전종석